



제49대 총동창회장 정현태 동문 재추대

“회장단·집행부 확대 개편...소통하고 화합하는 동창회 만들겠다” 약속



대건 중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6월 1일 호텔인터불고 대구 컨벤션홀에서 제67차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약 200여 명의 대건 중고등 동문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48대 정현태 총동창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8년 회부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019년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또한 대건 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정인환 교사의 4인에게 모범교사 표창을, 부회장으로 재임한 동문과 사무처 부장으로 봉사한 동문에게 공로상을 시상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2018 대건 가족 체육대회를 주관하여 훌륭하게 대회를 치른 김종성 회장(36회)과 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임 총동창회장의 선출이 있었는데 지난 2년간 총동창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온 정현태 동문이 참석 동

문의 만장일치로 재추대되어 49대 총동창회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정현태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 기간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 회장단 및 집행부를 확대 개편, 보강해 동창회 운영을 더 내실화하고 대건 장학회 기금을 확충하는 등 6만 동문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역량을 집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 최고의 명문고로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는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총동창회 차원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회장은 이어 “대건동문 선후배 여러분이 총동창회를 구심점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나 되도록 힘을 합쳐 나가자”는 당부와 함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는 총동창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동창회보를 발간하며 / 제49대 총동창회장 정현태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

대건 가족의 소식과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창회보 제44호의 발간을 동문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그리고 동창회보 발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편집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대건 동문들이 곁에 발자취가 담겨 있으며, 동기와 선후배의 반가운 모습과 활약상을 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동창회에서 마련한 다양한 행사들의 준비과정에 서부터 화보, 지역별 동문근황, 기수별 동정, 모교 소식까지 이번 동창회보도 알찬 지면으로 동문들을 찾아갑니다.

바쁜 일상에 쫓기던 동문들이 대건 동창회보를 펼쳐보며 잠시나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짓는다면, 100그램도 채 되지 않는 동창회보는 제 역할을 다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대건 동문들이 동창회보를 통해 위로받고 서로 인부름 묻는 속매제 역할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보 활자 하나와 사진 한 컷, 한 줄의 제목에도 혼을 담아 제작에 임했습니다. 편안한 휴식 같은 동창회보, 동문들에게 위로가 되는 제44호 동창회보임을 자신합니다.

동문들께서도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업무는 맡어놓으시고 동창회보를 펼쳐 반가운 동기와 선후배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겨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건 가족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문들에게 이번 동창회보가 또 하나의 자랑이 되길 바라며, 모든 대건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HOME COMING DAY

제43회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

제43회 동문들이 졸업25주년을 맞아 동기간 우애를 다지고
확성시절 그리운 은사님을 만나보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장 | 김용식 010 3818 5376 총무 | 지남고 010 4599 4479

2019. 11. 30 (토) 오후6시 부터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B1 아이리스크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http://www.daegungo.net

대건 제41회 대건 중·고등학교 가족 체육대회

| 일시 | 2019.10.13(일) 10시

| 장소 | 모교운동장(달서구 월성동)

| 주관 | 대건중35회·대건고37회 동기회

| 주최 |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화합하는 총동창회, 함께하는 사무처, 소통하는 사무처 될 것”

안녕하십니까? 금번 49대 대건 총동창회의 사무처장을 맡은 32회 이춘우입니다.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역대 훌륭한 사무처장님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사무처는 동창회의 집행조직이지만 회원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모래 위의 집과 같다 하였습니다.

항상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공감하는 사무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통의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www.daegungo.net)의 일방적인 전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SNS(대건 중고등학교 총동창회 밴드)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동문 여러분께 총동창회와 각 기별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고, 활동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1000밴드 회원 모집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젊은 동문들과의 친밀감을 높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총동창회는 타



이춘우

제49대
총동창회
사무처장

학교와 비교하여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활발한 편입니다만 앞으로 변화가는 세대의 영향으로 축어나 참여가 저조할까 우려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선배들의 삶의 지혜와 지지가 향후 사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사무처가 앞서서 젊은 동문들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각 동기회와 지역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이 업무를 책임 운영하여 대건의 전통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 사무처 인사 현황

졸업회수	성명	직함	직장
22회	이덕규	수석부회장	대구신용보증재단 감사
25회	허규옥	골프위원장	경일대 야구감독
32회	이춘우	사무처장	(주)삼두 대표
34회	천덕우	사무처장/총무부장	(주)아이시스 대표
36회	전병석	재무부장	대구은행 죽전PB센터장
40회	이 령	체육부장	기아자동차 SCM
41회	이재주	사업부장	명성종합주류 부사장
42회	김재철	문화부장	변호사 김재철 법률사무소
43회	이정섭	홍보부장	건축사무소 리안 대표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도 각 동기회 및 지역 동문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총동창회 사무처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양심과 정의와 사랑에

살자’는 10대부터 우리 가슴속에 묻고 있는 우리의 지향입니다. 동문 여러분과 함께 우정과 사랑이 넘치는 동창회를 만드는 선한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회 월별 행사

■ 2018년

▶10.13 제42회 동기회 졸업 25주년 기념 홈 커밍데이 개최.

▶10.14 제40회 대건 가족체육대회 개최. 주관가수 36회 동기회.

제1회 대건 양정사 백준호 대상 시상 2학년 1반 김승기

▶10.20 고교 산악부 문경산악대전,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클럽 동반대회 지원

▶10.23 2019학년도 수능입시 격려 대형 현수막 기속사 외벽 설치

▶10.30 제6회 총동창회장배 대건 가족골프대회 개최. 팔공 CC. 42개 팀 참가

▶11.01 21회 재강수 회장, 이석원 총무.

총동창회 방문. 발전기금 기탁

▶11.12 고교 수능성원 미사 빵, 음료 지원

▶11.19 체육대회, 골프대회, 홈 커밍데이 주관 행사 관계자 격려 만찬

▶12.06 대건관 강당 음향시설 완공 시연, 총동창회장 및 서중호 부회장 참석

▶12.07 고3학년 담임교사 격려

■ 2019년

▶01.25 2019년 신년교례회 개최, 수성구 만촌동 인터볼고 호텔 즐거운 출

▶02.01 중학교 졸업식, 상패와 부상 전달

▶02.14 고등학교 졸업식, 상패와 부상, 장학금 전달

▶03.02 2019학년도 대입 수능 결과 축하 만찬 개최

▶03.04 중,고교 입학식, 처장 직무대행 참석, 입학 장학금 전달.

▶03.19 고교 동창골프대회 예선전 참가. 참가동문 격려

▶03.22 고교 글로벌 리더십 대의원 수련회, 군위 청소년 수련원 개최.

▶04.28. 고등학교 ‘대건 감사와 알차의 밤’ 행사. 수석부회장, 처장 직무대행 참석

▶05.01. 제단법인 대건 총동창회 장학회 기금 모금 방안 프로젝트 ‘대건가족 CMS 신청하기’ 시행

▶05.21. 고등학교 노트북 12대 구입 지원 (장학회)

▶05.26. 경일대학교 헬스기구 기증, 중, 고등학교 몸방 헬스장 설치 운영

▶06.11. 제67차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인터볼고 컨벤션홀. 참석인원 200

여명, 정현태 현 회장 제49대 회장 연임.

▶07.02. 제단법인 대건 총동창회 장학회 이사회 개최.

▶07.12 - 19. 제단법인 대건 총동창회 장학회 주최, 아진산업㈜ 서중호(27회) 대표 이사 후원, 제6차 미국 연수 실시. 알라바마 주, 조지아주 일원. 고등학생 15명, 중학생 4명, 교원 3명, 동문 밴드 14명 총 36명 참가

▶08.27.(제)대건총동창회 장학회 이사회 개최

▶08.30. 고등학교 퇴직교사 감사패와 부상 전달.

▶09.16. 계교73주년 기념일, 중,고교 근속교사 표창 및 전교생, 전교직원, 교원 빵, 음료 제공

▶09.17. 2019년 2차 이사회 및 체육대회 조추첨 행사

IIoT 엣지 컨트롤러 모니터링 시스템

이제 여의시스템의 ECMS로 다양한 제조설비의 컨트롤러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고객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표이사 성명기 (22회)



전직/상담문의

2019년정기이사회 및 조추첨행사

총동창회 정기 이사회 및 체육대회 조추첨 행사가 9월 17일 본교 안드레아관 강당에서 70여 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현태 총동창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정기 이사회에서는 2년간 수고한 이종오(31회) 직전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공로패를 드려 그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정재현(24회) 외 9명의 당연직 부회장과 새로이 구성된 사무처 구성원



에게도 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졸업 25주년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는 43회 동기회(회장 김웅식, 총무 지남교)의 준비와 관련한 설명과 인사말을 들었다.

이날 변경된 당연직 부회장은 최순달(25회), 서상용(26회), 박성우(27회), 박창기(28회), 손진호(29회), 김종훈(35회), 한정호(38회), 이동룡(40회), 이재주(41회) 등분들이다



28회 동기회 추억의 수학여행

28회 동기회(회장 이관석)는 지난 4월 28일 경주와 감포일원으로 추억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40여년의 시간을 거슬러 학창시절 교복으로 갈아입고 잠시나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8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함께 했다



40회 동기회 전국모임 가저

40회 동기회(회장 이동룡)는 충북 충주 시 산척면 산척가든에서 단합야유회를 겸한 전국모임을 가졌다. 우정으로 사랑으로 하나되자는 슬로건으로 모인 동기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물놀이도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38회 동기회 야유회 행사 가저

38회 동기회(회장 윤태웅)는 지난 6월 1일 경상북도 영덕 일원에서 야유회를 개최하였다. 야유회와 골프대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친목을 다졌다.



34회 동기회 당구·골프대회

34회 동기회(회장 김대식)는 체육대회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 신천동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대회를 개최하였다.

3구와 4구 두 종목으로 나누어 펼쳐진 승부의 결과는 3구 우승 박순보, 4구 우승 배웅호 동기가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충주 금강선테리움CC에서 골프오픈즈34회장배(골프회장 정준수) 골프대회가 열렸다.



청년기수 회장단 간담회 개최

지난 9월 6일 달서구에 있는 옛날화로 식당에서 청년기수 회장단 간담회가 정현태 총동창회장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 선임된 집행부와 동기회장과 의 상견례를 겸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 기수단은 젊은 기수답게 동창회 발전을 위한 신선한 제안을 하였다. 특히 현안 중 하나인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 결성을 총동창회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과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다.



32회 동기회 봄나들이 다녀와

32회 동기회(회장 김채호)는 5월 19일 문경새재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동문 동정

◆2018년

▶6월 정현태(17회) 총동창회장 경일대학교 총장 3선 취임

▶6월 조창권(28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승진

▶6월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

19회 김영만 군위군수, 24회 류규하 중구청장, 27회 문준희 합천군수, 22회 전영태 수성구의원, 30회 김시한 경북도의원, 32회 김대현 대구시의원, 37회 오상석 중구의원

▶11월 이종호(34회) 공군준장 진급(공군 연구분석평가 단장)

▶12월 이준희(28회) 대구변호사회 회장 취임

◆2019년

▶1월 조용일(27회) 대구시약사회 회장 당선

▶1월 조지호(35회) 경무관 승진, 대구 성서경찰서장 취임

▶1월 김병철(30회) ㈜산한금융투자 시장 취임

▶1월 하복수(34회) 산촌문예단편소설(불교산문) 당선

▶9월 권혁일(40회)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장 발령

축 대건 동창회보 발간

태령건설

건축, 토목, 조경
산업설비 전문시공업체

053)422-3332, 812-8002








6회 총동창회장배 골프 성황

팔공CC 42개팀 참석

절경을 이룬 팔공산 단풍과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조화로운 10월의 막바지에 대건 동문과 그 가족 42개 팀이 함께 한 총동창

회장배 골프 대회가 팔공 CC에서 개최되었다. 맑은 공기와 붉게 물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선후배와 가족들이 안부를 묻고 건강한 친목을 다지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골프 대회는 깊어가는 가을처럼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7회 총동창회장배 골프 후끈

파미힐스 43개팀 160여명 참석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날에 경북 철곡 파미힐스 골프장에서 제7회 대건 총동창회장배 골프 대회(준비위원장 허규욱)가 열렸다

대건인의 친목과 화합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동문 간, 선후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열린 제7회 대건 가족 골프대회에는 43개 팀 160여 명이 참석하였다. 많은 동문들의 협찬과 후원으로 더욱더 빛나고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된 이날 경기 결과 신페리오 우승에 전경수(28회) 동문이 스트로크 우승에는 김원규(25회) 동문이 차지하였다.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덕분에 치러

진 제7회 대건 총동창회장배 골프 대회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다.

◆수상자 명단

■ 신페리오

- 우승: 전경수(28회)
- 준우승: 김무겸(28회)
- 3위: 이승립(24회)
- 통기스트상: 김진현(35회)
- 니어리스트상: 박성주(46회)

■ 스트로크

- 우승: 김원규(25회)
- 준우승: 허명원(36회)
- 3위: 김종필(35회)
- 다파: 박동진(24회)
- 다보기: 정창훈(43회)
- 베스트드레서: 신기욱(6회)

■ 2018/2019 총동창회 발전기금 및 각종행사 협찬 내역

◆ 2018년 동문 협찬내역

기수	직책	성명	내용
17회	총동창회장	정헌태	각종행사협찬 5,000,000원, 총회 기념품 바스세트 20개, 신년교례회 임세스트 12개, 골프대회 외 협찬 4,000,000원
21회	21회 동기회		2,000,000원
26회	재부산동창회장	유오국	1,000,000원
28회	임명직 부회장	사공득	신년교례회 기념타올 150개
35회	동기회 총무	최익찬	신년교례회 각대수30개
37회	동문	박영호	총회 회의록200매, 봉투소1300매

◆ 2018년 제6회 대건가족골프대회 협찬내역

출입회수	직책	성명	내용
6회	(제)대건총동창회장협의회 이사장	신기욱	2,000,000
8회	임명직 부회장	권원강	2,000,000
17회	총동창회장	정헌태	3,900,000
27회	임명직 부회장	사공득	3,882,500
28회	임명직 부회장	사공득	1,980,000
29회	동문	박상홍	300,000
31회	동문	남용호	300,000
31회	재교동창회장	이용원	200,000
32회	동기회	동기회 임종	300,000

◆ 2019년 제7회 대건가족골프대회 협찬내역

출입회수	직책	성명	내용
6회	(제)대건총동창회장협의회 이사장	신기욱	2,000,000
17회	총동창회장	정헌태	5,000,000
20회	동문	김희국	200,000
26회	동기회 회장	서광윤	200,000
26회	동문	최경길	200,000
28회	동문	황인용	200,000
28회	동문	허수호	200,000
29회	동문	이경수	200,000
29회	임명직 부회장	사공득	5,000,000
29회	임명직 부회장	이준희	200,000
29회	동문	박상홍	300,000
30회	동문	박진규	200,000
31회	동문	권병학	500,000
31회	동문	남용호	300,000
32회	동문	유기원	500,000
35회	동문	사동복	300,000
17회	총동창회장	정헌태	악이네 12세트
18회	임명직 부회장	김경만	오이 170 세트
25회	동기회 회장	장규원	기념타올 200장
25회	동문	류시홍	악인 10명
28회	임명직 부회장	사공득	내대양관(1,000,000)
28회	임명직 부회장	이승우	연진레형제(3,000,000)
31회	동문	조재식	타이틀 골프공 2BOX
32회	동문	이광수	봉투소 20명

[루브샵] www.lubeshop.co.kr

구입 및 상담 : 1800-5184



프리미엄 엔진코팅제·합성엔진오일의 대명사

엔진닥터큐

- 탁월한 성능
- 소음, 진동 감소
- 연비 향상



소중한 내차, “엔진닥터큐”로 제대로 관리하세요~!



나노 WS2 차세대 엔진코팅제·합성엔진오일로 최고의 윤활솔루션을 경험 해보세요!

특수유합유 전문기업
(주)루브샵코리아
대표이사 **이 승 우**
(29회, 총동창회 부회장)





풍부한 개발호재와 함께 급변하는 서대구에
디센터 1976 지식산업센터가 옵니다!



디센터 1976

경일대학교가 함께합니다.

D CENTER 1976

서 대 구 지 식 산 업 센 터

문의 053.567.1976

To Be The Best In The World!

www.wamc.co.kr

101년을 생각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USA]
- AJIN USA
- WOOSHIN USA



[CHINA]

- 아진실업(상해)유한공사
- 강소아진기차배건유한공사
- 산둥종호기차배건유한공사
- 대우전자부품 소주법인

[KOREA]

- 아진산업(주)본사 / 1공장
- (주)우신산업
- (주)아진카인텍
- 아진 경주구어공장
- 대우전자부품

[VIETNAM]

- 대우전자부품 베트남법인



총동창회 장학회신임이사 선출...장학기금 확대 한마음 모을 때

NO	직위	승임회수	성명	비고
1	이사장	6회	신기욱	위아주산업 회장 총동창회 명예회장
2	상임이사	22회	이덕규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현.대구신용보증재단감사
3	이사	15회	박도규	대보사 대표
4	이사	17회	정현태	총동창회장, 경일대학교 총장
5	이사	19회	김경호	(주)회전정밀 대표
6	이사	23회	서삼수	제삼대 총동창회장, 총동창회 고문 유삼우화학 대표
7	이사	27회	서중호	총동창회 임명직 부회장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장 이진산업대표
8	이사	28회	이준희	대구변호사회 회장
9	이사	28회	사공득	총동창회 임명직 부회장 (주)태령종합건설 대표
10	이사	29회	이승우	총동창회 임명직 부회장 (주)루브렐코리아 대표
11	감사	28회	이수형	회계사
12	감사	33회	배재열	법무사



(재)대건 총동창회 장학회는 지난 8월 27일 경일대학교 웹툰캠퍼스 회의실에서 2019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임원 임면의 건으로, 4명의 신임이사를 선출하였다.

총동창회 장학회는 활기찬 장학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지난 이사회에 비해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된 신임이사는 22회 이덕규, 23회 서삼수, 28회 사공득 그리고 가장 젊은 동문인 29회 이승우 동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 장학회 상임이사로 선출된 이덕규 동문은 장학기금 마련을 위

한 CMS 모금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동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재)대건 총동창회 장학회는 2013년에 창립하여 해마다 대건 중학교와 대건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4월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기초 소양인 코딩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와 모교 중, 고등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자원의 일환으로 두 학교의 낡은 전산실을 개선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 해마다 아진산업 대표 서중호(27회) 동문의 후원으로 재학생에게 미국 문화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모교 중·고등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 완료...축복식 진행

(재)대건 총동창회 장학회, 총동창회에서 지원

지난해 4월 30일 모교 중, 고등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완료되어 이를 기념하는 축복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축복식에는 30여 명의 동문과 교직원, 학생, 정혜철 신부와 교육신부가 참석해 컴퓨터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의 정보화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은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와 총동창회 장학회 등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대희 대건고 교장은 "창의적 문제해결

력을 갖춰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정보화 교육으로 보완하겠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총동창회 정현태 회장은 "모교가 자사고로서 안정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컴퓨터실에는 중, 고교 각 40대의 컴퓨터 본체와 대형 모니터, 수업 진행을 위한 멀티미디어 설비, 조경공사 등 약 8천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재)대건총동창회 장학금 자동이체(CMS)신청서

대건 동문 여러분

7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 모교는 훌륭한 전통과 역사, 동문들의 활약으로 인해 모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창회의 장학회 설립도 6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재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양성되도록 장학사업과 다양한 형태로 모교에 아낌 없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만 대건인 여러분!

총동창회는 동문들의 친목과 친교를 중시하면서 모교에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에 총동창회는 지속적인 자금 확충을 위하여 "대건가족 CMS 출금이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정현태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 장학회 이사장 신기욱

▶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재단법인 대건총동창회 장학회		
대표자	신기욱	사업자등록번호	514-82-14218
사업장주소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94길 46	수납요금종류	장학기금

▶ 출금이체신청내용(기부자 기재란)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금회수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명		생년월일	
예금주명		남부일	
수납요금종류	장학기금	후원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후원금액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기타(만원)	후원금액	

20년 월 일
기부자 성명: 서명



야구동아리 대구대표 출전

2019학년도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에 우리학교 야구 동아리 학생들이 출전하여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31일(목)부터 진행되는 전국대회 대구광역시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5회 대구지역 고등학생 야구대회(7월 27일)에서도 우승하는 등 꾸준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야구동아리는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한 세대를 건너 뛰어 대건 야구부의 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야구동아리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진 글로벌 체험단 미국 견학

대건총동창회 장학회에서 주관하고 아진산업(고27회 서중호 대표)에서 후원하는 대건-아진 글로벌 체험단이 미국 애틀랜타 일원을 누렸습니다. 한 분이라도 남아 계신다면 지속하겠다고 서중호 대표가 약속한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자리에서는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아진 본사 회의실에서 가졌던 서중호 대표와의 미팅과 바쁜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수페르나 윈드 3연속 우수상

대건중의 자랑인 수페르나 윈드 오케스트라는 지난 8월 21일(수) 춘천에서 개최한 제17회 춘천전국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연습이었지만 지휘자인 이동인 선생님을 중심으로 79명의 단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31일(토)에 개최된 대구광역시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남중부 피구에서 2,3학년 남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학교 대표 팀이 우승을 거두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2019대건한마당축제 개최

지난 5월 30일 학교 본관과 대건관에 있는 2019학년도 대건 한마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대건인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여한 한마당 축제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건인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전교생이 모여 금연 선포식 및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였고 꿈·끼 발표대회를 열어 평소 가지고 있던 대건인들의 끼와 흥을 마음껏 발휘해 한마당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마음 깊어, 세상은 넓고 할 것은 많다라는 점을 느꼈다. 평소에도 동기부여를 위한 강연과 같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상은 넓음을 말하는 것을 본 적이 많다. 들을 때는 참 쉽게 다가오는 한 마디겠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느껴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8살의 어린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 그런 기회를 주신 서중호 대표님과 우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아진 USA 여러 직원 분들, 학교 선배를 넘어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들어주신 멘토님들, 함께 고생해주신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전하고 싶다. 더불어 이 추억을 공유하는 체험단 친구들과는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문을 넘어서는 순간 무언가를 느꼈다. 말로

“세상은 넓고 할 것은 많다”

이창준 5기 대건-아진 글로벌 체험단 기행문

만 들던 미국에 와 있다는 기분이었는지, 내가 외국인이 되어버린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지, 앞으로의 체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렬한 기억이다. 그때가 아마 '세상은 넓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낀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호텔에 도착해서는 피로감이 밀려들었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잠들었다.

사파리와 야구장 뮤지컬 Annie 공연, 몽고메리 크루저 유람, 우리와 먼 존재라고 생각했던 흑인들과 같이 춤까지 추었다. 처음에는 두려움인 줄 알았던 어색함이 약간 있었지만, 음악과 함께 하나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그때에 피부색보다는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셋째 날에는 가장 의미있었던 6.25 참전용사 공연 및 오찬이 있었다. 내 앞에 앉아 계시는 이 할아버지 분들이, 수십년 전 6.25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분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감사함을 크게 느꼈다. 그 뒤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진USA 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면서는 대표님이 이 행사를 주최하시는 취지를 정말로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경험을 선물해 주시기 위함인데, 그런 결심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6.25 감사행사의 취지 또한 이야기해주셨는데 꼭 이런 자리를 여는 것만이 아니라도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 자체도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오토바이 박물관과 인디언 스프링스 고등학교, 마틴 루터 킹 생가, 애틀랜타 시내의 3가지 명소(코카콜라 전시관, CNN, 조지아 아쿠아리움)를 체험 등 두 번 다시 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생각났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을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내가 경험한 이 일주일엔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넓은 세계를 맛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내가 미래에 살아가게 될 세계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었고, 세상은 넓고 할 것은 많다라는 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와, 내 친구들과 열정과 동기를 충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 세대를 거치고도 살아남는 장수기업이 되는 것은 모든 사업자의 꿈이었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한순간에 사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다양한 리스크 중에서도 세무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국세청에서 차세대시스템 구축으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 및 진행내용을 살펴보고 철저한 예방으로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 소득 - 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 소득 - 지출 분석시스템(Properl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PCI)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재산증가, 소비지출액, 신고소득 등)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취약·호황업종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세원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이다. 또한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세무조사 확률 낮추는 방법

자산 취득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 자료로 활용한다. 법인의 오나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소비지출 및 재산증식에 활용하였는지 여부도 검증할 수 있다.

◎ 세무조사 대응법

1. 자료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2. 조력권 사용도 가능하다. 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답변이 단서가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3.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다.

4.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5.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서명날인이 되면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유 없는 날인 거부도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세무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

1.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2. 증빙자료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에 의해 소명이 되

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다.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3. 결산서와 세금 점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영자는 안일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면 리스크 및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4. 토지, 건물, 신규 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 거래에는 반드시 세금 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가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 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이는 부정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정준수

세무사(34회)

제39회 대전가족체육대회 열려

35회 동기회(회장 김종훈)가 주관한 39회 대전가족체육대회가 2017년 10월15일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모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다참가상 1위 42회, 2위 28회, 3위29회가 차지 했으며, 종합우승은 41회, 2위 25회, 3위 37회, 최초 참가상은 45회, 49회, 50회가 참석하였다.

개회식에 앞서 대전중·고등학교 총동창회와 재단법인 대전총동창회장학회의 현

판식도 거행되었다.

입장식과 성화 봉송으로 시작된 체육대회는 정연태 총동창회장의 개회선언과 신기욱 명예회장의 흥상전달식, 전 최유일 사무처장의 황금열쇠 전달, 1회 류병주 동문의 공로패 전달, 현관 글씨 기부 최종국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로 시상식이 이어졌다. 1부 행사후 2부에 초대된 가수 박상민은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제40회 대전가족체육대회 개최

36회(회장 김종성) 동기회가 주관한 제40회 대전가족체육대회가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10월 14일 월성동 모교 운동장 개최됐다. 가수별 입장을 시작으로 정연태 총동창회장의 대회사, 김종성 주관기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동문 국회의원 과상도(27회)의원, 강효상(28회)의원, 김상훈(31회)의원, 명예동문 윤재욱의원과 류규하(24회)중구청장, 김대현(32회)대구시의원, 김시환(30회)경북도의원, 오상석(37회)중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총동창회에서는 2018년 처음 제1회 대전 양경사 백준호 대상을 신설해 매년 체육대회시 시상하기로 하였다. 첫 수상자로 당시 2-1 김승기 학생(40회 김현철 동문의 자녀)이 선정, 영예를 안았다.

이날 행사에는 젊은 세대인 51 ~ 54 회 4개 가수가 체육대회 첫 참가를 하여 총동창회의 격려금 전달이 있었다. 또 재부산 동창회 유호묵(26회)회장의 동창회 발전기금 기탁했다.



42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행사

42회 동기회(회장 김영균)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 호텔 인터볼고 엑스코에서 동기간의 우애를 다지고 학창시절 은사님을 찾아뵙는 졸업 25주년 기념 홈커밍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3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홈 커밍행사를 빛내주셨고 42회 동기들은 25년 전 베풀어준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홈 커밍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한 정연태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학금을 마련하여 총동창회장학회에 기금을 조성해 준 42회 동기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25년의 우정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기원하였다.

42회 동기회에서는 홈 커밍행사를 통해 모교 고등학교에 1000만원, 중학교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참석하신 은사님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총동창회 회보발간을 축하합니다

천안 핵심 상권 상가 분양

분양 사무실

분양 임대 557-9994

(주)탑프라자

대표이사 신현국(32회)
054-475-1133

신종 감염병을 세상에 퍼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여행

2015년 5월 20일,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메르스(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중증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여 계속 번져나가고 있음을 선포했다. 여름조차 생소한 신종 감염병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방에만 머물고 있던 감염병이 단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메르스 예방 백신은 아직 개발중이며, 사멸되지 않고 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태어난 곳 주변에서만 머물러 살던 과거와 달리 여행이 자유로워진 지금은 새로운 병이 유행하면 교통수단을 통해 삼시간에 전세계로 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6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브라질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함으로써 이대로 가다가는 올림픽이 끝난 후 전세계에 전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했고, 1976년에 처음 나타나 산발적으로 유행하다 2014년부터 콩고민주주의공화국을 비롯한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고 있는 에볼라출혈열의 기세가 다른 대륙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하는 것도 여행객들의 증가 때문이다.

■ 인천공항에 열감지기를 설치하게 한 사스

여행을 통해 새로 발생한 감염병 환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각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 여행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해 주고 있으며, 귀국하는 여행자들에게는 특정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본부 핫라인을 이용하여 당장 연락해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분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한 것은 사스(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유행이 계기가 되었다.

2002년 11월 16일, 지구상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질병인 사스가 나타났다. 새로운 질병이 출현한 장소는 이보다 5년 앞선 1997년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중국 광둥지방이었다. 조류독감과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침범하는 전염성 질환이면서도 그 위력은 조류독감보다 더 강했다.

사스에 걸리면 호흡이 빨라지고, 열이 나며,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며칠 사이에 폐기능에 문제가 생겨 사망에 이르곤 했다. 중국은 새로운 병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를 눈치챈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정부에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고서를 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수개월이 지나 전세계로부터 "질병발생정보를 빨리 알리지 않은 것이 화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은 후야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2003년 2월이 되자 사스로 목숨을 잃은 환자수가 30명을 넘어섰다. 중국, 싱가포르를 거쳐 베트남에 도착한 미국인 사업가가 하노이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세계보건기구에서 파견하여 베트남에 와 있던 이탈리아 의사 우르바니(Carlo Urbani)는 새로운 병이 그 때까지 지구상에 출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질병이라는 보고를 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3월 12일에 중국에서 시작한 신종 전염병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을 선포했다. 이 때부터 국제사회가 대응에 나섰다. 사스 환자들이 돌아다니는 곳에서는 새로운 환자들이 줄을 이어 발생했고, 우르바니도 세 아이와 아내를 남겨둔 채 3월 29일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사스의 순교자"로 남게 되었다.



예병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32회)

저는 코로나바이러스였다. 사스가 사람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광둥지방 야생동물에게 널리 퍼져 있던 코로나바이러스에 돌연변이가 발생한 결과로 추측된다.

전체 사망자중 중국 349명, 홍콩 299명, 캐나다 44명, 타이완 37명, 싱가포르 33명이었고, 그 외에는 베트남에 5명으로 가장 많았으니 전세계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발생지역 주변국가를 제외하면 캐나다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비행기 여행이 전파에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 오락을 위한 여행의 시대 개막

교통이 발달하기 전의 여행 목적은 실크로드나 대항해시대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일과 전쟁을 위한 이동이었다. 말이나 배를 타고 오락을 위한 여행을 즐기는 일은 자못 드문 일이었겠지만 자동차와 비행기의 등장은 여행의 목적을 오락으로 바꾸어 놓았다.

오락을 위한 여행이라면 17세기 영국의 상류층에서 유행한 그랜드 투어가 시초가 될 것이다. 왕의 권리를 강조한 찰스 1세를 몰아내려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 가던 영국에서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에 자녀들을 보내 이탈리아에서 태동한 발전된 문화를 느끼기 하려는 교육이 유행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아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동행했고, 그 중에는 단순히 시종드는 사람은 물론 여행을 안내할 지식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글래스고 대학의 스미스(Adam Smith)는 젊은 버클 공작의 가정교사로 따라 간 여행경험을 바탕으로 『국부론』을 썼다. 또 로마시대에 발전한 온천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프랑스의 몽테뉴(Michel Eyquem de Montaigne)는 그의 대표작인 『수상록』을 집필한 후 신장결석 치료를 위해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의 온천을 순례 여행을 담은 『여행일기』를 발표했다. 국내에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괴테의 책은 1786년의 이탈리아 여행을 주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19세기 말, 철도가 건설되면서 배와 함께 장거리 여행의 양대 수단으로 떠오르자 만국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가 가능해졌다. 1870년에 발표된 쾰른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시간과 돈만 있으면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1903년 라이트형제에 의해 발명된 비행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반인들의 여행을 위해 상업화하면서 해외여행자는 급격한 증가했다. 덕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한 달씩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여행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행지역에서 유행하는 풍토병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가끔씩 "동남아시아 OO에서 귀국한 비행기내에서 콜레라균이 발견되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는 것과 유사한 뉴스가 전해지곤 한다. 1981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어 지금은 전세계에 널리 퍼져있다시피 한 에이즈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여행객들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 나간 것으로 추측되며, 조류독감, 에볼라출혈열, 마르부르크 출혈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증, 리프트 밸리열 등 새로 출현하는 감염병은 무엇이든 여행이 용이해진 것과 함께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전세계 곳곳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락을 위한 여행시대의 개막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의학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여행이 신종 감염병 전파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지금 해외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국가별여행정보 (<http://www.cdc.gov/krcdc/travelListes?mid=a20102010101>)를 참고로 하셔서 예방대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시기를 권한다.

주식회사 서울의 박정호(37회)
☎ 010-8688-7677 | 대구시 남구 지곡로136,5F | 053-701-6211 | soul.com@naver.com

2020 자율형 사립고 대건고등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제1차 2019. 10. 26.(토)14:00, 제2차 2019. 11. 16.(토)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내 대건관



'감동실현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기술로 고객에게 문화로 사회에게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위드텍!

Semiconductor &
FPD Manufacturing

Bio & Health

Environment
(Air, Water & Soil)

Power Plants &
Military

www.withtech.co.kr

(주) 위드텍 대표이사 유승교(28회)

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300 | TEL. 042-936-7117

동탄점 :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10길 38 | TEL. 031-297-0600

대건 동창회보 발간을 축하합니다



(주) 대 영

의약품 도매기업

CEO **홍 성 희(32회)**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30

053) 561-3373